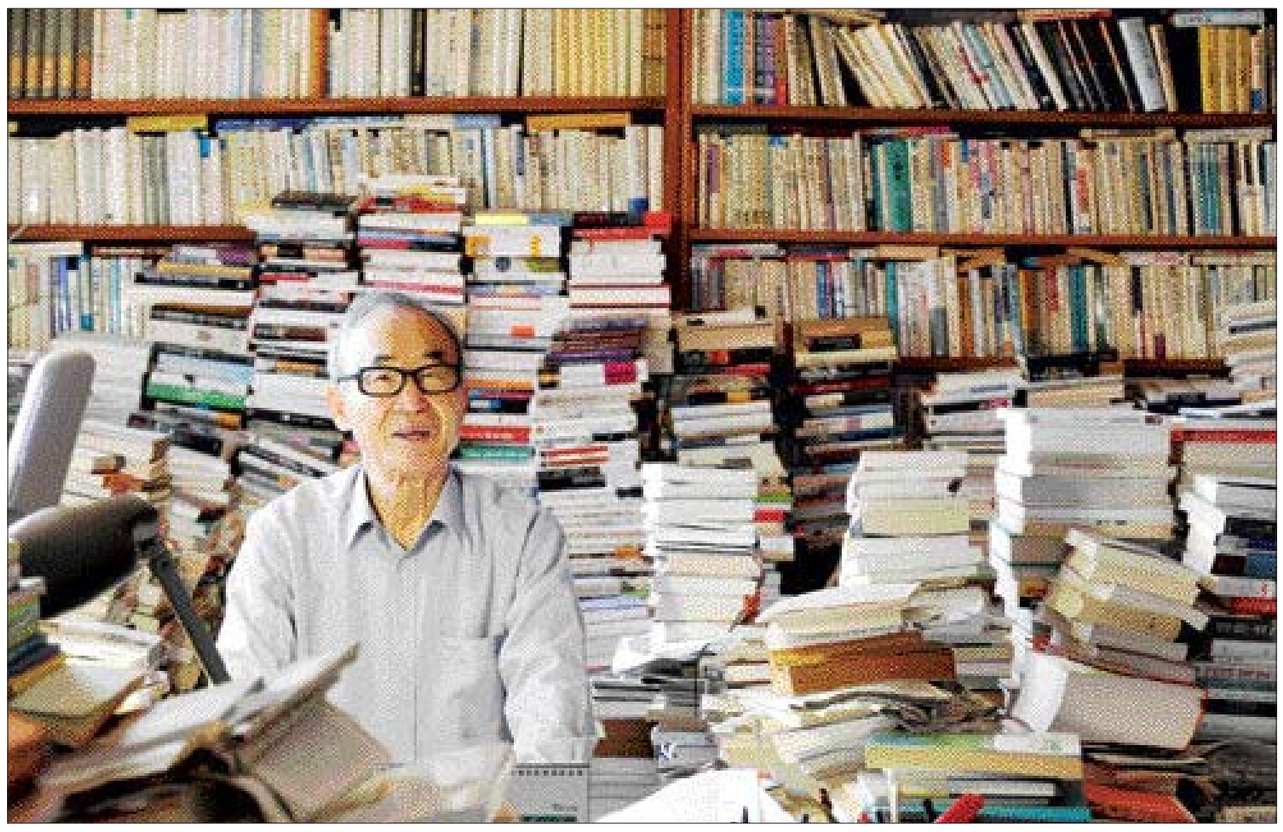
2010년은 고은(77) 시인에게 있어 특별한 해가 될 것 같다. 1960년 첫 시집 ‘피안감성’을 낸지 꼭 반세기가 되었고, 자신의 대작 ‘만인보’(萬人譜) 완간을 눈 앞에 두고 있기 때문이다. 또 시인의 시집에서 착안한 주제로 제8회 광주비엔날레가 치러질 예정이다.

지난 16일 경기도 안성 자택에서 ‘만인보’ 마지막 교정에 여념이 없는 시인을 어렵게 만날 수 있었다. 시인은 그 어느 때보다 건강하고 활기찬 모습이었다.

고 시인은 ‘만인보’ 완간에 대해 “25년쯤 ‘동행’해서인지 거의 일상이 돼버려 극적인 감회가 없다”며 “‘만인보’ 완간과 5·18 30주년, 광주비엔날레가 잘 어우러져 좋은 성과를 냈으면 한다”고 말했다.



“해 갈수록 ‘5월 정신’ 희석 안타까워”

“광주비엔날레 기획 참여 적극 돕고 싶어”

“기회 되면 강연회 등 5·18 30주년 동참”

-요즘 어떻게 지내십니까.

▲정신이 하나도 없습니다. 무엇보다도 ‘만인보’ 완간본 출간을 위한 최종 교정작업을 하고 있어 눈코 뜰 새 없습니다. ‘만인보’는 원래 작년에 완간하려 했는데, 너무 몰아쳐서 하는 것 같아 올해 초로 미뤘습니다. 마무리 단계에 들어섰으니 이달 말 완간됩니다.

-25년간 참으로 긴 행군이었습니다. ‘만인보’ 완간이 선생님에겐 어떤 의미인가요..

▲솔직히 말하자면 극적인 감회 같은 것은 없습니다. 이제 ‘한 지점까지 다 왔구나’ 그런 느낌은 들죠. 감옥에 있을 때 구상해서 80년 중반에야 쓰게 됐는데, 그것만 썼으면 벌써 다 끝났을 텐데 다른 작업도 하면서 쓰니까 꽤 오래 걸린 것 같습니다. 오래 쓰다 보니 장점도 있더라고요. 시선을 어느 시대에 고정시키면 그 시대의 얼굴만 나오는데, 오히려 오랜 기간에 걸쳐쓰니까 시대마다 변화한 다른 얼굴상이 나오더군요. 아직도 마음속으로는 끝낼 수 없지만 세상과의 약속 30권은 마쳤으니까 그것으로 위안을 삼습니다.

-이달 말 출간되는 27~30권은 5·18광주민주화운동과 관련된 인물들이 등장한다고 들었습니다

▲80년 5월 당시 희생된 시민들과 부상자, 열혈운동가들이 등장합니다. 5·18이라는 역사적 행위는 민중이라는 무명의 시민들에 의한 거국적인 행위 아니겠습니까. 충장로에서 일하던 구두닦이, 역전의 양아치 등 그야말로 이름없는 민중들이 주인공이죠. 그들의 혼을 달래는 것뿐만 아니라 그들이 누려야했을 나머지 삶을 연장시키는 그런 의미의 시라 할 수 있습니다. 연작시를 구상할 때 이렇게 마무리해야겠구나 계획해 놓았는데 생각대로 된 것 같습니다.

-최근 ‘만인보’(10,000 Lives)가 8회 광주비엔날레 주제로 채택됐습니다. 흔쾌히 허락하셨는지요.

▲지오니 감독이 편지도 보내고, 직접 찾아와 요청해서 수락했습니다. 특히 올해 비엔날레는 광주민주화운동 30주년에 열리는 행사가 아닙니까. 하지만 무엇보다 인간의 본성, 인류애를 다루겠다는 감독의 의지가 내 마음을 움직였어요. 5·18이 민족 전체의 마음을 움직였던 역사적 사건이었던 만큼 ‘만인보’의 주제와 일목상통하는 것 같아서요. 직접 지오니 감독을 만나보니 믿음이 생기더군요. 오래전부터 알아왔던 사람처럼 낯설지 않았어요.

-광주비엔날레와 관련해 도울 일이 있으면 적극 돕겠다고 밝힌 것으로 압니다. 구체적으로 어떻게 참여하실 건가요.

▲내가 이래봬도 비엔날레와 인연이 깊은 사람입니다.(웃음) 5회 비엔날레때 참여관객으로 광주비엔날레에 시를 선보인 적이 있거든요. 만약 재단측이 요청을 하면 기꺼이 기획 등에 참여하고 싶습니다.

-그림을 그리신다고 들었습니다. 요즘은 어떠신가요.

▲지금은 못하고 있지만 서울 친구 작업실에서 가끔 해왔습니다. 그림은 그리곤 있지만 취미지 전문가들이 하는 그런 수준이 못됩니다. 비엔날레 참여작가들의 작품은 그야말로 자신의 운명을 바쳐서 하는 작업인데 내 영역이 아니죠. 나는 글로 표현하는 사람이지……. 차원이 다르지요(웃음)

-올해는 5·18 30주년이 되는 뜻깊은 해 입니다. 관련행사에 참여할 계획이 있으신지요.

▲해가 갈수록 ‘5·18 정신’이 희석되고 있어 안타깝습니다. 이번 30주년은 이 희석된 5·18의 정신을 전국화, 세계화 시키는 기폭제가 되길 바랍니다. 광주의 피와 눈물이 우리 민족의 운명에 어떻게 기여했는가 다시 한번 깨달아야 합니다. 조만간 ‘만인보’ 완결판을 들고 꼭 광주를 찾을 계획입니다. 기회가 된다면 기념강연 등 5·18 30주년 행사에 동참하고 싶구요.

-늘 노벨문학상의 유력한 후보로 거론되었습니다. 올해는 ‘만인보’도 완간되고 비엔날레 주제로 채택돼 분위기가 아주 좋습니다.

▲매번 그렇지만 아무런 ‘정보’도 없어요. 나 역시 외신을 통해 알려지는 것 외엔 아무것도 몰라 대답할 게 없습니다. 그리고 그게 날 참 구속해요. 외국엘 가도 노벨문학상 후보자라는 타이틀이 따라 다녀 거북해요. 비엔날레가 세계적인 행사이긴 하지만 엄연히 미술행사지요. 나는 그런 식으로 세계에 알려지는 것 원치 않아요.(웃음)

/안성=김대성기자 bigkim@kwangju.co.kr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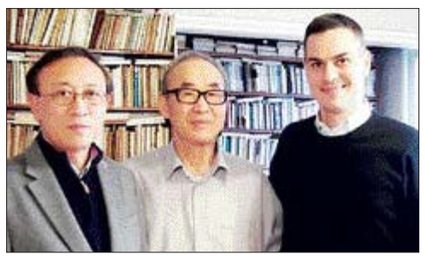
/사진=김진수기자 jeans@kwangju.co.kr

고 은 시인과 지오니 총감독의 인연

‘만인보’ 읽고 감명 안성 자택 찾아가 광주비엔날레 주제 사용 허락 받아내

“친애하는 고은님. 당신의 ‘만인보’는 단순한 역사의 나열이 아니라, 역사의 노래입니다…. 광주비엔날레의 주제를 ‘만인보’로 결정할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십시오.” -마시밀리아노 지오니 감독이 고은 시인에게 보낸 편지 중.

고은 시인과 마시밀리아노 지오니 감독의 인연은 지난 1월 말 지오니가 보낸 한 통의 영문 편지로부터 시작된다.



지난 8일 고은 시인의 경기도 안성 자택을 찾은 이용우 (재)광주비엔날레재단 상임부이사장(왼쪽)과 지오니 총감독. 〈(재)광주비엔날레 제공〉

지난해 비엔날레 감독으로 선임된 이후 제8회 광주비엔날레 주제를 고민하던 그는 인간의 본성, 인류애로 주제를 압축하고 키워드를 찾던 중 오래전 읽은 한 시인의 시가 떠올랐다. 바로 고은의 ‘만인보’였다. 전쟁과 군부 독재로 대표되는 격동의 한국사를 버텨낸 실제 인물을 주제로 쓴 ‘만인보’ 영문판을 읽었던 지오니는 당시 큰 감명을 받았다. 특히 시인이 독재에 항거했고, 작품성을 인정받아 노벨문학상 후보까지 거론되었던 점을 알고는 존경하게 됐다.

마침 ‘만인보’가 완간을 앞두고 있다는 소식은 ‘마음’을 굳히게 했다. 특히 제27~30권이 5·18 광주민중항쟁을 거친 인물들을 다루고 있다는 점은 5·18 30주년인 올해 광주비엔날레의 주제로 적격이라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더 이상 고민할 이유가 없어진 그는 지난 8일 고은 시인의 자택을 찾았고 ‘만인보’를 광주비엔날레 주제로 사용할 수 있도록 허락을 받아냈다.

지오니 감독은 11일 ‘만인보’를 전시주제로 채택한 데 대해 “‘만인보’는 고은 시인의 시집이기도 하지만 만인들의 삶, 특히 시각예술에 등장하는 온갖 이미지라는 의미를 가진다”며 “올해 광주비엔날레를 통해 이미지들이 어떻게 조작되고 순환되며, 교환되는지를 보여줄 것”이라고 밝혔다.

/김대성기자 bigkim@kwangju.co.kr

고 은의 ‘만인보’는

사람만을 노래한 4천여편 연작시 시로 쓴 인물사전

‘시로 쓴 인물사전’ 혹은 ‘시로 쓴 민족의 호적부’라 일컬어지는 ‘만인보’(萬人譜)는 고은 시인의 대표작으로 세계 최초로 사람만을 노래한 4천여 편에 이르는 연작시다.

1980년 5월 전두환 전 대통령이 일으킨 쿠데타에 저항하고 광주민주화운동에 관여했다는 이유로 내란음모, 계엄법 위반으로 육군교도소에 수감, 군법회의에서 20년 형을 받고 감금되었을 때 ‘미치지 않기 위해’ 그가 아는 모든 이들을 머릿속에 그리며 구상했다고 한다.

1982년 석방된 이후 1985년부터 쓰기 시작해, 1986년 1권을 필두로 2007년 26권까지 총 3천285편의 시를 담았다. 특히 작가가 살아오면서 유년시절부터 현재에 이르기까지 만났던 특정인물들을 실명으로 다루는 것이 특징이며 영어, 독일어, 스페인어 등 세계 7개 이상의 언어로 번역, 출간됐다. 매년 고 은 시인이 노벨문학상 후보로 오르내리는 것도 이와 무관하지 않다.

25년의 집필기간을 거쳐 올해 2월 말 3천800여 편 30권으로 완간을 앞두고 있다.

/김대성기자 bigkim@kwangju.co.kr